

의 질문을 통하여 「列子」에 이미 素朴한 감각 경험을 토대로 한 自然認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荀子」에 나타난 天은 物質世界를 가리킨다. 自然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현상을 그 자체의 法則性에 의한 生成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社會秩序와 별개의 것이라고 보았다. 科學的인 自然觀을 기초로 呪術과 迷信을 거부하고 天·人관계에 介在된 문제들을 合理的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莊子 역시 自然認識에 대한 기본 문제로 우선 天과 人의 관계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있다. 人間이 善이나 惡이나 하는 倫理的 가치규정에 앞서 그 자연한 法則性에 따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기계론적 인간이해

荀子は 自然界의 客觀의 存在를 否定하고 人間의 다양한 精神활동도 自然의 法則性에 의해서 表出된 것이라고 보았다. 「列子」에는 人間의 觀念이나 思考·行動 등을 機械論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心臟의 移植手術에 성공한 扁鵲이라든가 實人과 전혀 식별이 안가는 人形을 만들어 낸 工人의 이야기가 있다. 특히 그것은 우리의 精神현상까지도 物質의 力學的 作用으로 파악하려는 試圖이었다.

荀子は 自然에 대처하는 人間의 自覺的인 能动性을 중시, 天·地와 人間을 併立시켜 <能三>이란 創造의 原理를 전개시켰다. 기본적으로 人間은 自然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이 1차적 성격을 갖는 것이겠으나 또한 人間이 自然을 통제하고 개조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욕이 表明되어 있다.

4. 농업기술의 개발

農業은 人間과 自然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이룩하였다. 技術創案이 강구되고 自然에 대한 대규모의 改造작업이 진행되었다. 鐵의 발견과 농기구로의 그 利用은 人間의 自然에 대한 統制에 質的 변화를 가져온 第二의 技術革命이었다.

한편 陳相과 許行을 중심으로 하는 農家思想의 집단이 戰國期에 실제로 활약하였다. 그들에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농업생산에 관한 기술과 手段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社會意識에 관한 문제이었다.

5. 생의 과학적 방법

墨子は 自然에 의존하는 동물적인 상태로부터 人間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生産勞動 자체에 道德的 가치기준을 설정하였다. 勞動에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收穫도 不義라고 배척하였다.

墨子が 주장하는 <兼愛>는 대중의 생활에 實利를 보장해 주기 위한 財貨의 增殖이었다. 그것을 저해하는 宿命論을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삶에 科學的인 思惟 터전을 마련하고 非科學的인 宿命論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三表論理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自然과 事實에 대한 우리의 實證的 자세의 표명이었으며 모든 사물을 歷史的 경험과 社會的 현실 속에서 비추어 봄으로써 그 실천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된다.

6. 과학지식의 성과

「墨經」에는 幾何學·光學 등 自然科學에 관한 많은 知識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幾何學에 관한 定義나 公理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그림자와 반사경에 관한 理論들은 상당한 수준의 光學의 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自然哲學의 측면의 몇가지 範疇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知識은 감각으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思惟形式을 거쳐 완성된다는 것이다. 時·空 개념의 도입이었다.

7. 맺는 말

우리가 中國의 古代科學이나 技術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반드시 대중의 利益과 결부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특정한 統治權力의 強化를 위해 동원되는 수가 많았다. 실제로 戰爭의 歷史가 科學技術의 발달을 촉진시킨 것도 사실이다.

墨家は 科學技術의 非軍事化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集團이었다. 科學技術의 최종 役割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盲目的일 수 없다는 社會的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중의 절실한 현실적 利害문제와 유리된 그 어떤 技術의 玩弄도 非科學的이며 부당한 것이라고 이를 거부하였다.

相補性和 佛教의 中道論理

東國大 哲學科 金容貞

현대물리학에서 微視的인 粒子는 因果連鎖로 이해할 수 없는 二重的인 전체가 존재한다는 것, 즉 그것은 관측자가 서로 排除하는 실험방법 중에서

어느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二義的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이 상황을 Bohr는 <相補性>이라 불렀다.

主体와 客體의 분리에 의한 Descartes적인 二元的 思维方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서양인들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Pauli는 精神과 肉體의 관계 문제는 心身並行論과 같은 사유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정신과 육체가 동일한 현실의 相補的인 두개의 樣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좀더 만족할 만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仏敎의 緣起를 말한 Govinda의 사상과 일치한다. 즉 Govinda는 『外的 世界와 그것의 內的 세계는 동일한 織物의 양면이다. 거기에서 모든 힘과 모든 사건의 실들이, 그리고 모든 의식의 형식과 그것들의 대상의 실들이 서로 연관지어져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끝없는 綱으로 짜지고 있다』고 하여 存在의 상호연관뿐만 아니라 존재와 의식과의 상호작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Bohr의 粒子-波動的 相補性과 Descartes적인 物質-精神의 二元論이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Heisenberg의 주장은 意識內容이 분명히 非物質的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두뇌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Schopenhauer의 神秘主義思想이 Jung의 <同期性>의 사상을 낳게 하였고 뒤에 Pauli와 Heisenberg에게 영향을 주어 물질과 정신의 相補性의 사상을 낳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오늘의 原子論을 단지 경험적 直觀에 기초하여 발견될 수 있는 기본적 요소에 관한 分析的연구의 理論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대의 原子論은 그와 반대로 假定的 總體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혀 綜合的인 構成理論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Bachelard는 『현대의 原子科學은 어떠한 哲學의 觀點에서도 해명할 수 있으며 또한 현대의 原子論은 形而上學 중에서도 가장 不可思議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원자론과 哲學을 결부시키고 있다. 그는 哲學의 原子論에서 實證主義의 경험적인 입장이 先行해야 함을 주장하면서도 Heisenberg의 연구의 誘因이 된 哲學의 反動만큼 풍부한 교훈을 준 일은 없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경험철학과 Platon주의적인 관념철학, 그리고 物質과 精神은 相補性을 이루

는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仏敎는 古代印度의 여러 自然哲學을 체계화하여 地·水·火·風·空의 五元素를 五代라고 불렀다. 이 五代 중에서 우리의 감각에 知覺되는 것은 4원소뿐이며 끝의 空은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것이나 4원소를 생기게 하는 근원이다. 이것은 物理學의 <場>과 일치하는 것이다.

『依存性(因緣)을 우리들은 空性이라고 한다. 空性은 假名이며 中道와 동일한 것이다. 의존하지 않고 생긴 것은 없으므로 空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Nāgārjuna는 이렇게 논하고 있다. 결국 空性은 有도 無도 초월하고 있으며 言語나 思维의 分別性있는 어느 것에다 맞춰 보아도 分別성의 表現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만이 남을 때 그것을 이르는 말이다. 空은 이미 언어와 사유를 초월하고 있으며 단지 因緣의 의미를 依託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場>과 <空>의 論理的 一致를 볼 수 있다.

<空>의 理論과 <場>의 이론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것이다. 전자는 仏法의 原理이고 후자는 物理學의 原理이다. 그러나 兩者에 있어서의 認識論上的 論理的 歸結은 얼마나 동일한 <不二不一>의 哲學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 原子物理學에서는 物質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粒子和 波動的의 두 개념을 다 적용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 우리는 原子의 實在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두가지 心象을 다루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것은 東洋의 불교도들이 對立的인 것들을 넘어선 實在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결국 Capra가 말한 바와 같이 科學과 仏敎를 각각 推論的인 것과 直觀的인 것의 두 性能을 지닌 人間精神의 相補的인 表現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物理學者는 推論的 精神의 극단적 專門化를 통하여 세계를 경험한다. 그 둘의 접근방법은 전혀 다르며, 과거의 어떠한 物理世界의 견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內包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物理學에서 배운 것처럼 相補的의다. 어느쪽도 그 다른 것에서 이해되지 않으며, 그들 중의 어느쪽도 다른 것으로 還元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둘은 세계에 관한 보다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相互補完的의다.